

나랏빚 증가, '文 정부 80조원, 尹 정부 70조원'

경제포커스

김홍수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뒤국정 브리핑에선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원 이상 늘린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수치는 409조원이다. 그런데 건전 재정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 정부도 2년간 국가 채무를 128조원 늘렸다. 세 번째 짠 2025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가 3년간 늘리는 국가 채무는 209조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문 정부 80조원, 윤 정부 70조원'.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의 공정성을 위해 감안해야 할 요소가 두 가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윤 정부에선 그 정도 초대형 돌발 악재는 없었다. 또 하나 윤 정부의 나랏빚 수치는 '재정 흡수' 변수가 숨어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환율 관리 자금 공간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와

세수 구멍을 메우는 데 썼다. 이 돈은 정부가 환율 방어에 위해 외환보유액 달러를 내다 판 돈이 원화로 바뀌어 외환기금에 쌓인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돈이라 국가 채무로 잡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 구멍을 메우는 '도수'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없는 핏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달러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향후 세금으로 갚

'건전 재정' 강조했지만 국가채무 증가액은 비수대뿔 박힌 포퓰리즘 정책 탓으로 제동장치 만들어야

야야 할 '적자성 채무'로 전환해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됐다"고 두리뭉실 지적했다. 쉽게 풀이하면 정부가 새 빚을 내는 대신 보유 자산을 팔았다는 뜻이다. 미래 세대가 가용할 양식을 미리 빼먹는다는 점에서 오십보백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올해도 외환기금 43조원을 끌어다 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0조원 이상 구멍 날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작년처럼 외환기금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흡수도 이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원화

외환채를 8조원 이상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환기금마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엔 국제채를 201조원여치나 발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 구멍을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이전 국제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변화이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윤 정부의 재정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 정부로부터 비롯된 과도한 가계 부채 탓에 내수 회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감세 정책이 반도체 경기 둔화 사이클과 맞물리며 세수 핑크를 촉발한 점은 윤 정부의 불운, 혹은 실책으로 볼 수 있다.

윤 정부의 어려운 정책 여건은 국민들도 다 안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체감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나 분명해진 것은 기초연금, 병장 월급 200만원, 대학생 75% 국가 장학금 지급 등 대뿔 박힌 포퓰리즘 정책 탓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국가 채무 증가세를 막는 건 갈수록 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정부 스스로는 제동을 걸지 못하니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강제로 채울 필요가 있다. 유럽처럼 재정 적자를 GDP의 일정 비율 이상 넘지 못하게 강제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준의 맛과 섬 [206]

서산 곤쟁이젓

가을이 되면 젓갈에 맛이 든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며 숙성된 맛이다. 그대로 밤상에 올려도 좋고, 무와 채소와 버무려서 먹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밥도둑이다. 가장 큰 밥도둑은 막 지은 밥에 비벼 먹는 곤쟁이젓이다. 이렇게 먹어 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인다. 환삼이든 보리밥이든 곤쟁이젓 비빔밥은 감동이다. 옛날 중국 사신이 해주를 지나다 곤쟁이젓을 먹고 감동하여, 이 맛을 못 보는 노모가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감동젓'이라 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조선 시대 양반들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었으며, 중국도 사신을 통해 곤쟁이젓을 요구하기도 했다.

곤쟁이는 길이가 1센티미터 남짓 되는 아주 작은 곤쟁이과 갑각류다.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고개미, 강원도에서

는 부새우라고도 한다. 고문헌에는 곤쟁이젓을 자하해, 감동해, 세하해라 했다. '전어지'에는 곤쟁이는 서해와 남해에서 온 나라가 남칠 정도로 많으나 지만 해주에서 나는 곤쟁이가 잘고 부드러운 맛이 좋다고 했다. '도문대작'에는 '의주'에서 나는 것이 가늘고 달다고 했다. 모두 시나브로 강물이 들어오는 파도가 적은 연안이나 내만이다.

처음 곤쟁이를 만난 곳은 부안 새만금유보관 근처 바닷가다.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기 전이다. 몇 명 어민들이 무릎 깊이의 갯골을 따라 허리에 자루를 묶어 물에 끌고 다녔다. 뿔 잡는지 몰라 물어보니 '쌀새우'라고 했다. 쌀새우는 곤쟁이의 다른 이름인 세하를 말한다. 지난해 여름에는 서해랑길을 걷다가 곰소만 한 어촌에서 자루를 들러매고 바다로 들어가는 어민을



만났다. 인천 젓갈 시장에서 곤쟁이젓을 파는 상인도 만났다.

그리고 마침내 서산의 가로림만에서 직접 곤쟁이를 잡는 한 어민을 만나 곤쟁이젓을 받았다. 그는 곤쟁이를 잡는 즉시 뱃전에서 바로 천일염과 버무려 젓갈을 담근다고 했다. '전어지'에도 곤쟁이는 5월부터 8월까지 잡는데 배에 항아리와 소금을 준비했다가 즉시 젓갈을 담근다고 했다. 여름을 보내며 그 곤쟁이젓을 꺼냈다. 그리고 막 지은 밥에 한 수저 올리고 참기름을 더해 비벼다.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 딱딱 밥 한 그릇을 비우고 한 그릇을 더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說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민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제보와 정황이 있다”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령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가우뿔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른 사령한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건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같은 총압과 출신들이 계엄령과 관련

된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압과 출신 장성은 전체 4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가 질서 완전 붕괴라는 최악 사태를 가정한 군의 ‘계엄 검토 문건’을 국가 안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애초에 무리한 소동이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작년 말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자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를 퍼뜨렸다. 총선 때는 “계엄 저지선 확보”를 구호로 내걸었다.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퍼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곧 있을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이 괴담들 중에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괴담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다.

싸워도 꼭 이렇게 경망하고 저질스러워야 하나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 이후 여야 의원들은 국회 앞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의원 입기 시작 96일 만에 열린 ‘지각 개원식’이었지만, 의원들은 서로 웃으며 손을 잡고 협치를 외쳤다. 그러나 그 직후 열린 김용환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경망하듯 막말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토지혁명·빵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경제혁명·복지혁명·평화혁명이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이 강 의원 앞에서 “포라이구먼, 저거”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는 파행했다. 다음 날에도 민주당은 레닌 발언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동료 의원들에게 욕설을 남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국회의원들의 저질 막말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22대 국회 들어선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장

들이 먼저 막말과 인신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야당 일부 상임위원장은 공적 후보자에게 “너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거나, 군 장성들에게 “일어나 반성하고 들어오라”며 퇴장시킨 일도 있다. 대통령 부인에게 “살인자”라는 막말을 하고도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극단적 대립 정치의 풍토가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조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야당을 향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는 도 넘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한 극단적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마저 무너지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욕 발언을 제외한 막말에 대해서 구체적 징계 조항이 없다. 정치권의 자율 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극단적 막말을 한 의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고물가 잡혔는데 금리 못 내려, 뼈아픈 부동산 오판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은 “물가 둔화 흐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편”이라고 했다. 7월 기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9%이고, 유로 지역은 2.2%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0.5%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2023년 1월 3.5%로 인상한 뒤 고금리를 유지한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력적이었다. 그동안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국민 고통이 컸다. 소득은 안 느는데 높은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구 흑자액이 2022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를 온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버틴 결과 드디어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 금동위는 지난 8월에도 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하락기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저금리 대출을 풀어 집 구매를 독려했다. 서울 전세가는 67주 연속 상승하고, 서

울 아파트 매매가는 2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 폭이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 폭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토부 장관은 “추세적 상승은 없을 것”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오판했다. 정책 대졸의 영향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뒤늦게 집값 진화에 나서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9월부터 대출 규제에 들어갔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8월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9조6259억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영끌’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0년 11월(9조4195억원)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만 한 달 새 8조9115억원 증가해 전체 가계 대출의 93%를 차지했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10월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금리를 낮췄다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의 적기가 왔는데도 금리를 못 내리게 만든 부동산 시장 오판이 뼈아프다.

《계엄령 선포설》 누가 거짓말 하나

이재명, 《설》만 풀지 말고, 증명하라... 못하든 안하든, 크게 응징해야

“큰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된다”는 수법 히틀러 스탈린 시진핑 푸틴 수법 따라하는 듯 ★거짓정보 ★가짜뉴스 ★대중선동 수법이다



▲ 이재명은 다양한 수법을 쓴다. 중국 공산당에겐 무조건 '세세', 치베스 마두라 총내 내어 현금 마구 뿌리자고 한다. 여러석은 군중을 '교세' 재미 본 것이다. 마구잡이 (찬일) 낙인찍기도 하고 있다. 히틀러 스탈린 푸틴 시진핑에게서 영감을 얻은 듯, 이런 《큰 거짓말 수법》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 뉴데일리

중대 사태다

누가, 《계엄》 어찌고의 《큰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재명 인가, 윤석열 정부인가? 중대 사태다.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은 또다시 괴담을 확산하고 있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설》을 계속 유포한다는 것이다.

■ 이재명, 윤석열이 쿠데타 음모... 과연 그런가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계엄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 계엄과 동시에 의원들을 체포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는 무사할 수 없다. (쿠데타 음모)인 까닭이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면, 이재명이야말로 무사해선 [절대로] 안 된다.

《쿠데타 음모설》은 은밀히 유포된다 해도, 가만 놓아둘 수 없다. 하물며, 그런 설(說)을 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전했다? 《큰 거짓말》인 뉘 보든 문제가 아니다.

■ 이재명은 히틀러에서 영감을 얻었나

《큰 거짓말》은 히틀러의 나치가 써먹은 대표적인 대중 기

만술이었다.

그의 부하 괴벨스는 말했다. “큰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면, 진실이 된다.” 히틀러도 그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말했다. “큰 거짓말은 대중이 믿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다.”

나치는 [모든 재앙은 유대인 때문]이란 《큰 거짓말》로 일세를 휘어잡았다.

공산당도 마찬가지다. 스탈린은 수백만 농민이 아사했을 때, 온갖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고 식량을 수출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공산당의 거짓 구호를 이렇게 예시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억압, 무지는 힘.”

■ 시진핑 푸틴에게서도 한 수 배웠는가

오늘의 세계는 어떤가? 뉴미디어와 SNS가 ★거짓 정보 ★가짜뉴스 ★대중선동을 한층 더 부추킨다는 비명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사탄 승배의 지배를 받는 신나치”라고 거짓 역(說) 정보를 흘렸다

시진핑의 증공은 “미국이 코로나 균을 우한에 뿌렸다”고 했다.

한국은?

■ 이재명에게 반드시 책임 물어야

《★광우병 ★청와대 ★구사드 참외》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골병 들게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잡겠다 한다. 그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했다. 오염수가 가장 먼저 도착할 미국 캐나다라는 바보라, 말이 없나?

이재명은 증명하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의도했나? 정부는 이재명이다. 《큰 거짓말》의 책임을 져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집결으로 2024년 9월 3일 게재 되었습니다.

